

수시 탈락 늘고, 사탐 쏠림까지 인문계 정시경쟁 더 치열해진다

주요대 인문계 수시탈락 1.5만건▲
사탐 고득점 급증 등 정시경쟁 가중
자연계, 수시탈락 감소 등 경쟁 완화
2027학년도 재수생 증가 가능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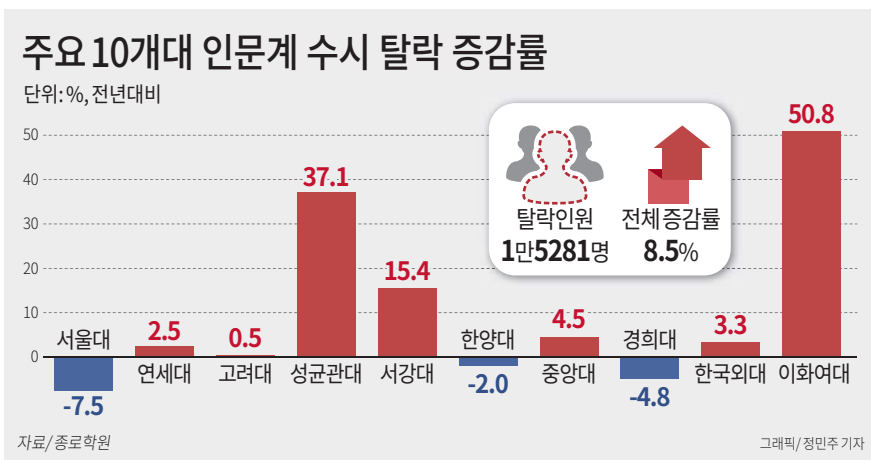
202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경쟁이 지난해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탈락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시에서의 경쟁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이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지원 건수 기준 탈락 규모는 19만42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5281건(8.5%) 증가했다. 수시 선발인원은 9305명이었으나 지원은 20만3543건에 달해 탈락 규모가 확대됐다.

세부 대학별로는 양상이 엇갈렸다. 서울대는 탈락 규모가 4226건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지만, 고려대는 2만202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앙대가 2만7320건으로 4.5% 증가한 반면, 경희대는 2만3981건으로 4.8% 감소해 대학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외대는 2만1774건으로 693건 증가하며 전체적인 증가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같은 인문계 탈락 규모 증가에 더해, ▲사탐 고득점자 급증 ▲확률과 통계 선택자 증가 등이 중첩되며 정시 경쟁을 압박하는 구도라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반면 자연계는 탈락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자연계 수시 모집인원은 8591명, 지원은 20만4654건이었으며 이중 탈락 건수는 19만6063건으로 전년 대비 6924건(3.4%) 감소했다. 자연계 고득점자 감소, 수능 응시자수 감소, 의대 모집정원 축소 가능성 등이 정시 경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채점 결과에서도 인문계 경쟁 심화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확인됐다. 사탐 응시생 중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과탐(3만7308명)의 2.1배에 달했다. 사람이 지난해보다 4만2303명 크게 증가한 반면, 과탐은 크게 줄어 수능 구조가 인문계 쏠림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수학 선택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26만4355명으로 전년 대비 6만2089명(30.7%) 증가해 2022학년도 통합수능 이후 최대 비중(56.1%)을 기록했다. 반면 미적분은 전년 대비 3만3837명(14.9%) 감소한 19만3395명, 기하는 1만3624명으로 111명

(0.8%) 줄어들었다.

수시 탈락 증가와 수능 채점 결과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불리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변환표준점수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어·영어의 불수능 영향까지 겹쳐 신중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는 게 종로학원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는 2027학년도 재수생 증가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7학년도가 현행 대입제도의 마지막 적용 연도이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정원 변동 이슈까지 겹칠 경우, 재대전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시 탈락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 정시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계열별 구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인문계는 탐구 변환점수와 국어·영어·수학 난이도 등 변수를 면밀히 확인해 신중한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설명회·상담 등 정시대비 지원

수능 응시자 증가, 사탐런 변수 등
커진 입시 불안에 종합 지원 나서
설명회·상담 운영, 진학자료 배포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대비를 위해 ‘대입 정시 설명회’,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 운영, ‘정시 자료집 및 대입 강의 영상’ 제공, ‘쎈(SEN)진학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다양한 진학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정시모집은 수능 응시자 증가, 과목 난이도 변화, 이공계 지원자의 사회탐구 선택 확대에 인한 ‘사탐런’, 의대 정원 원복 등 변수가 겹치며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공신력 있는 정시 대비 지원이 수험생·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시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13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2025 대입 정시모집 결과 및 2026 수능 결과 분석 ▲2026 정시모집 특징 및 지원 전략 등 핵심 강의 2개가 제공되며, 강의는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가 맡는다. 참가 신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12월 18일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서울교육 쌤TV’를 통해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지역 수험생(졸업생 포함)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특별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광진구청과 영등포구에 설치된 상담센터에서 총 1530건의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며, 인문·자연·의학·미술·체

육·특성화고·전문대 등 계열별 전문 부스가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기회균형전형은 15일 9시부터, 일반전형은 12월 16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사이트를 통해 접수되며 12월 21일 23시에 마감된다.

상담은 매년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할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원단 소속 전문 교사가 진행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학교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쎈(SEN)진학 2026 정시모집 진학지도 자료집(5종)’ ▲‘2026 정시 대비 진학지도 동영상(10편)’을 제작해 배포했다.

자료집은 지난 1일까지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됐으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파일도 공개해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영상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유튜브 ‘서울교육 쌤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시장, 하노이에 한강개발 경험 공유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 참석
하노이 홍강 개발에 한강 노하우 공유

아시아 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개발과 디지털 행정 전환과 관련해 한강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 하노이대학교를 찾아 한국어학과 등 현지 대학생 400여 명에게 서울시 정책과 유학 제도를 소개하며 우수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 서울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970년대 치수(治水) 중심에서 친수(親水)로 정책을 전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미래형 수변 정책

‘그레이트 한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수변 개발 과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강 개발을 도시 성장의 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전환한 서울의 정책적 경험에 관심이 집중됐다.

교통·환경·안전 등 서울이 축적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온 디지털도시 운영 노하우도 소개됐다. 시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후동행카드, 손목다터9988 등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여온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서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지속 공유하고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현지시각) 오 시장은 부다이 탕(Vu Dai Thang)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앞서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전략적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국비 6.4조 확보… 10.3% 증가

(올해 대비)

역대 최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투입

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규모로, 인천시가 국비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정책, 미래산업 육성, 복지 지원 등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시민 생활 향상을 모색하는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

주요 반영 사업은 ▲GTX-B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등 대규모 교통·기반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 원 ▲수소차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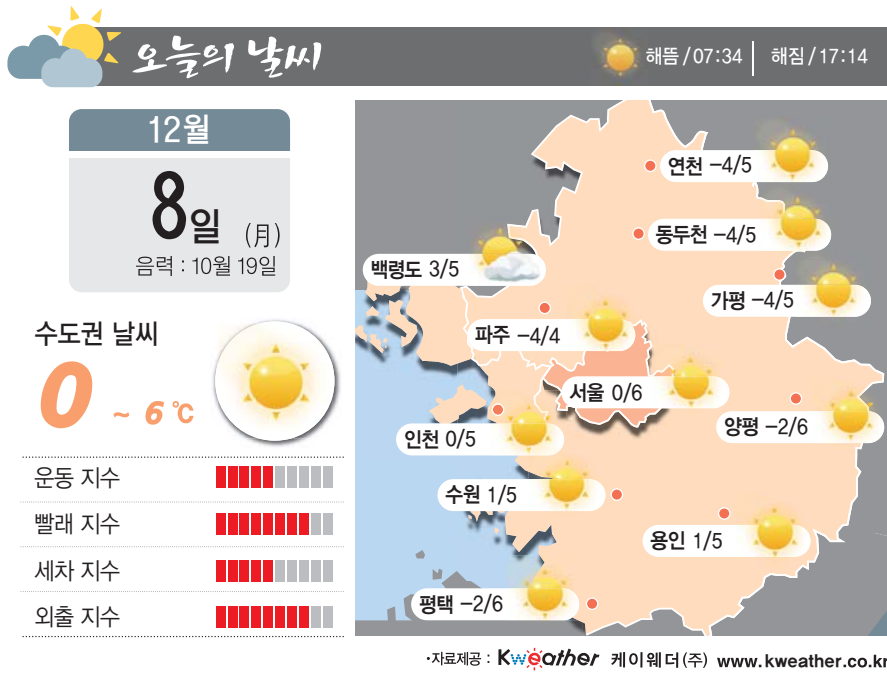
878억 원 등 친환경 전환 사업도 대폭 확대됐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 일자리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 수립 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 증액에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 심사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25억)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강화 고려 박물관 타당성 용역(5억)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등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 시장은 “확보된 국비가 시민 행복과 인천 미래 성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구글 美 검색어 2위 ‘케데한’…K콘텐츠가 트렌드 집어삼켰다 /사진 뉴시스
▲스페이스X 주식 매각설에…머스크 “정기 자사주 매입”

▲세계 억만장자 3000명 눈앞…한국은 7명 줄어 31명
▲우크라, 러 핵심 물류기업 사이버 공격…“165TB 삭제”

▲홍콩 30년 막 밟고 다닌 디딤돌, 알고보니 2억 년 된 공룡 발자국
▲독일 외무장관 8~9일 방중…경제·안보 현안 논의 전망